

# 군정질문 답변서

- 질문일시 : 2015. 9. 1.(화)
- 질문의원 : 김향란의원
- 질문내용
  1. 국제연극제 관련
  2. 교육지원 예산과 관련
  3. 체육정책 관련
  4. 거창교도소 대체지 문제와 관련
  5.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 질문 및 답변자

○ 일 시 : 2015. 9. 1.(화) 10:00 ~

질문 의원	질 문 내 용	답변자	비고
김향란 의원	1. 국제연극제 관련	부군수	1
	2. 교육지원 예산과 관련	창조 산업과	11
	3. 거창교도소 대체지 문제와 관련	창조 산업과	19
	4.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안전 총괄과	27
		승강기 경제과	38
5. 체육정책 관련	체육 청소년 사업소	45	

# 군 정 질 문 답 변 서

- 질문일시 : 2015. 9. 1( 화 )
- 질문의원 : 김 향 란 의원
- 질문내용
  - 거창국제연극제 관련

답 변 자 : 거창군 부군수

# 군정질문 답변 요지

## □ 질문요지

### ○ 국제연극제 기획과 관련하여

- 국제연극제의 방향성과 정체성은
- 작품의 선정과 관객수는
- 부대행사는 어떻게 편성되었는가
- 예산편성에서 세계초연희곡공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 경연초청단체 상금이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

### ○ 국제연극제 운영에 관하여

- 조직구성에 있어서의 예술감독의 역할은
- 국제연극제 육성진흥회의 역할과 회장의 역할은
- 축제 공간 구성에서 폐쇄한 극장현황과 폐쇄한 이유는
- 축제 평가단이 관람한 공연의 티켓 관리 현황은
- 자원봉사 현황은

### ○ 국제연극제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하여

- 포스터 디자인과 글자체 디자인한 이유
- 홍보 활동에 사용한 지역별 방법과 홍보량 등의 상세내역은
- SNS를 활용한 지역별 방법과 홍보량 등의 상세 내역은
- 마케팅 전략은 무엇이었나
- 마케팅 성과와 마케팅 활동과정에서의 문제점은

### ○ 국제연극제 총제적인 면에 대하여

- 최근 3년간 관객 동원수와 공연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 안내 불친절 문제 사례와 연극인 쉼터 운영 현황은
- 국제연극제에서 거창군의 역할은 무엇인가
- 국제연극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 대학연극제를 두고 거창국제연극제육성진흥회 현 회장과 전 회장과의 분쟁에 대한 거창군의 입장은

## □ 답변요지

### ① 국제연극제 기획과 관련하여

- 2014년부터 새로운 조직체제로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
- 전국 공모를 통한 공정한 평가로 작품 선정과 관객수 12만명
- 공중파 방송 및 학술세미나 개최 등
- 초연희곡작품은 보조금으로 시상금 지급 불가 및 경연 시상금은 육성진흥회의 자부담 부족으로 감액

### ② 국제연극제 운영에 관하여

- 예술감독은 축제의 컨셉과 공연작품 선정 등 축제업무 관장
- 육성진흥회는 행사계획수립, 진행, 보조금 정산등이며 회장은 연극제의 제반 사항 총괄
- 2014년 세월로 사건을 계기로 노후시설 공연장 폐쇄
- 평가단 3명 6일동안 8개작품 평가
- 메르스 영향으로 자원봉사 지원자가 신청자가 없어 애로

### ③ 국제연극제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하여

- 포스터는 물질만능을 풍자한 그림
- 공중파매체 4개와 일반 홍보시설 활용 홍보 만전
- 티켓 및 현금 4,500만원 협찬

### ④ 국제연극제 총체적인 면에 대하여

- 관람객 수는 2015년 119,000여명으로 전년과 비슷함
- 휴게공간은 육성진흥회의 재정사정으로 설치 못했음
- 2014년부터 예산투명성 제고와 공연작품 공모 등을 통한 질적향상을 위한 노력
- 육성진흥회와 거창대학연극제집행회가 대화를 통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

## 군 정 질 문 답 변 내 용

- 먼저 의원님께서 거창국제연극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서는 거창국제연극제에 관하여 크게 4개 분야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 첫 번째 거창국제연극제의 기획분야
  
- 두 번째 거창국제연극제의 운영분야
  
- 세 번째 거창국제연극제의 홍보 및 마케팅 분야
  
- 마지막으로 거창국제연극제의 총체적인 분야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 먼저 거창국제연극제 기획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창국제연극제는 1989년에 시월 연극제로 시작되어 1983년 5회째부터 해외극단이 참가하여 국제연극제로 확대되었고, 1998년 제10회째부터 수송대 야외무대에서 “자연·인간·연극”이라는 테마로 국내 최고의 야외공연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20회를 넘기면서 특별한 변화없이 전년과 비슷하게 개최하여 한계에 부딪치게 되어서
- 2014년부터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여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2015년에는 전년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였습니다.
- 작품 선정은 전국 공모로 개막작 5개, 초청작 52개, 경연작 31개 등 88개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 국내 정상급 연극 전문가를 초빙 공정한 심사를 통해 야외연극축제에 부합되는 초연, 가족극 중심으로 컨셉을 잡아 최종 공연 작품을 선정하였고, 12만여명이 연극을 관람 하였습니다.
- 부대행사로는 KBS 2TV ‘아침’,  
MBC경남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 거창역사 OX퀴즈,

거창국제연극제의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을 위한 KIFT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하였으며

- 세계초연희곡 공모 예산은 2013년 상부기관의 감사시 보조금으로 시상금 지급을 할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 되었으며, 경연초청단체 상금도 육성진흥회 자부담이 부족해 절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두 번째, 거창국제연극제 운영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예술감독은 축제의 컨셉을 설정하고, 주제별 경향을 색션화하여 연극축제의 예술적 분야를 책임지는 역할로서 개·폐막 공연, 초청작, 경연작, 프린지 거리공연, 공연장 시스템 개선, 축제진행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는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부대사업 시행, 조직운영과 자원조달 및 집행, 국제간 연극예술교류를 통한 연극 진흥 및 국제교류, 연극 연구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육성진흥회장은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의 업무는 축제개최의 총괄적 관리 감독의 역할이며



- 2013년 7개 극장을 운영하였으나,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우려 되는 자유극장, 태양극장을 폐쇄하였으며,
  - 축제평가단 3명이 참관한 공연은 7월 30일 파우스트 등 8개 작품에 2,993명이 관람하였으며
  - 자원봉사자는 메르스 여파로 초기 지원자가 없어 추가 모집과, 자원봉사센터의 도움을 받아 55명이 근무하였습니다.
- 세 번째, 거창국제연극제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연예술에 있어 포스터는 공연이 표방하는 마케팅의 집합체라 할 수 있습니다. 제27회 포스터는 연극의 시작점인 영국의 한 신사와 개 한 마리가 등장하는데 신사가 개에게 뼈다귀를 주고 있는 모습으로서 선과 악을 보색으로 대비하여 물질만능에 대한 풍자를 연극 장면처럼 표현 했으며,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배경을 흑백으로 처리하였으며,

- 홍보는 KBS 2TV 현지생방송과 KBS 1TV 창원, 진주 방송국과 경남 MBC-TV, KNN-TV, YTN 등 대중매체 167회와 디지털케이블 VOD 436,000회에 CF광고를 하였으며
- 네이버 브랜드 검색광고 1개월, 전국지자체, 서울 대학로, 고속도로 터미널 등 포스터 전단 720매 게시, KTX 서울역 등 전국 17개소 LED전광판 광고, 가로배너 1,100매, 홍보탑 2개, 신문 보도자료 40여회 등을 통해 행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며
- 블로그 기자단 취재 지원과 페이스북을 통해 연극제 상황과 공연일정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 마케팅 전략과 성과는, 지역 연고 및 출향인 기업체, 관내 업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티켓 협찬 23백만원과 개인후원 22백만원 총 45백만원 협찬금을 받았으며, 전년 대비 40% 수준으로 이는 2015년 3월초 협찬금 수수료에 대한 감사원 감사로 인하여 기업체에서 협찬금 지원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마지막으로 연극제 총체적인 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근 3년간 관객수는 2013년 187,010명, 2014년 127,265명, 2015년 118,975명이며 관람객이 줄어든 주 요인으로는 메르스 사태와 전반적이 경기 불황에 따른 피서객이 줄어든 요인이 되겠습니다.
- 관람객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일부 다툼이 있었으나, 현장에서 사유설명을 통한 불만을 해소 하고, 계속해서 직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친절교육을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였으며,
- 편의시설 등을 겸비한 휴게공간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육성진흥회의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은행나무 주변에 파라솔 10개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 거창국제연극제에 대한 우리군의 역할은 보조금 지원과 정산, 행사 점검 등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며,
- 27년간 거창국제연극제를 개최하여 오고 있으나, 20회를 넘기면서 여러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켰으나, 2014년부터는 변화와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먼저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미비점과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도 하나씩 개선하고 있으며, 향후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거창 국제연극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와 거창전국대학연극제집행위원회 모두가 거창군 연극제 육성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 두 단체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국제연극제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군정질문답변서

- 질문일시 : 2015. 9. 1.(화) 10:00 ~
- 질문의원 : 김 향 란
- 질문내용

## 1. 교육지원 예산과 관련사항

- ① 2015년 학교 지원예산을 함양군과 비교한다면?
- ② 장학회 출연금을 통해 학교 교육을 지원할 계획은?
- ③ 원어민 교육사업 예산과 성과 및 현황은?
- ④ 방과후 교육 예산 현황은?

답 변 자 : 창조산업과

# 군 정 질 문 답 변 요 지

## □ 질문요지

- ① 2015년 학교 지원예산 현황을 함양군과 비교한다면?
- ② 장학회 출연금을 통해 학교 교육을 지원할 계획은?
- ③ 원어민 교육사업 예산과 성과 및 현황은?
- ④ 방과후 교육 예산 현황은?

## □ 답변요지

- ① 함양군은 2015년 12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우리군은 민선5기 출범이후 연 100억 가량을 교육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2014년 이후에는 축소될 수 밖에 없어 2015년에는 17억 5천 7백만원의 교육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② 군지역에 불리한 규정으로 2014년 이후에는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교육사업만 추진하여 왔으나 내년부터는 이마저 어려워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③ 우리군은 도내에서 6번째로 많은 영어보조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영어학습에 대한 사업의 역할과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④ 2013년까지 매년 1억 5천만원을 방과후 예산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군지역에 불리한 규정으로 2014년부터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며 현실상 지원이 힘든 실정임

# 군 정 질 문 답 변 내 용

【답변 : 창조산업과】

□ 창조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 먼저,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지원 예산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2015년 학교 지원예산에 대해 함양군과 비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함양군의 학교지원 예산 사항을 우리군에서 정확히 알지 못해 함양군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료에 의하면, 함양군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채용, 방과후 학교 운영,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1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우리군은 민선5기 군정 출범 이후 교육환경개선비, 교육경비, 군 장학회 장학금을 비롯해 인재육성, 대학지원, 급식, 체육활동 지원비 등으로 연 100억원 가량의 예산을 교육사업에 집중 투자해 왔습니다.

○ 이는 도내 어느 군 지역과도 비교가 되지 않으며, 중 소 규모의 시 단위를 능가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군의 지원과 교육기관의 노력으로 우리군은 도내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과 학습여건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그러나 2014년 이후에는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자체 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그 동안 우리군이 지원해오던 교육부분 지원이 축소될 수 밖에 없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다행히 우리군에서는 2010년도부터 교육여건과 환경 개선에 집중적인 지원으로 교육단위별 수요를 거의 충족시켜 왔으며, 2015년도에는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예산 10억원 등, 총 17억 5천 7백만원의 교육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리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수차례 상급기관에 공식건의도 하였고, 이흥기 군수님께서 회장으로 계시는 전국 농어촌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정부에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부처를 방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다음으로 장학회 출연금 지원을 통한 학교 교육비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3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세입예산 과목 개편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우리군은 2014년부터는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이에 우리군에서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거창군장학회의 출연사업 및 위탁사업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과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해 2014년부터 금년도까지 지원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상급 기관의 감사지적 등으로 향후 이마저 지원이 어려운 형편에 있어 내년도 교육지원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다음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의 예산과 성과 및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2005년도에 외국어교육 특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에 걸맞게 우리군은 총 25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하여 도내 군지역은 물론, 일부 시지역보다 많은 18개 시군 중 6번째로 많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보유하여 군내 초·중·고 7천 8백여명 학생 전원이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학습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은 외국어 교육특구 지정과 함께, 2006년 중학교에 6명 3억원의 예산 지원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이를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초·중·고 전체 학교 학급으로 확대하여 현재까지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을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원어민 영어교육의 효과를 가시화, 수치화 하기는 어려운 일이라 지원사업의 효과를 수치화하여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단순 영어 수업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독후감 쓰기, 영어 연극부 운영, 영어캠프, 영어놀이반 운영, 원어민 공개수업, 교원 영어능력개발 지원 등 다양한 방면으로 영어학습을 돕고 있습니다.

○ 이는 학생들에게 문법과 독해학습에 치중하던 영어 학습을 원어민 교사를 통해 말하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외국어 적응력이 강화되어 의사소통 능력에 자신감을 길러줌으로서 영어 울렁증을 없애게 하는 등 영어 학습에 있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의 역할과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4. 마지막으로 방과후 교육예산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사업은 2013년까지는 매년 초·중학교에 1억원, 고등학교에 5천만원, 총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4년부터는 우리군에 불리한 교육경비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인해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여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군의 노력을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 소관부처인 교육부에서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2014. 11. 7 ~ 11. 17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개정을 추진

하고 있으나 관련 부처간의 이견으로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방과 후 학교 예산 지원이 어려워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군 정 질 문 답 변 서

● 질문일시 : 2015. 9. 1.(화) 10:00 ~

● 질문의원 : 김 향 란 의원

● 질문내용

## 1. 거창교도소 대체지 문제와 관련

- ① 대체지 관련 군민간의 갈등 사례와 해결 방안은?
- ② 갈등해소위원회 재가동을 위해 노력할 의향은?
- ③ 군민들의 의사에 따라 교도소 입지가 결정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④ 교육도시 거창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군이 나서서 법무부에 대체지 마련 요구 할 계획은?
- ⑤ 거창지원과 지청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의 4만평이상 되는 국유지와 국유림 86필지 내역?

답 변 자 : 창조산업과

# 군 정 질 문 답 변 요 지

## □ 질문요지

- ① 대체지 관련 군민간의 갈등 사례와 해결 방안은?
- ② 갈등해소위원회 재가동을 위해 노력할 의향은?
- ③ 군민들의 의사에 따라 교도소 입지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④ 교육도시 거창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군이 나서서 법무부에 대체지 마련 요구를 획기적으로 할 계획은?
- ⑤ 거창지원과 지청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의 4만평이상 되는 국유지와 국유림이 86필지나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 □ 답변요지

- ① 갈등의 원인은 반대 단체측에서 대체지를 제안하면서 지역 주민들간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갈등해결에 나서야 함
- ② 갈등해소위원회는 구성된 바 없으며, 갈등해소 방안 협의를 위한 실무자와의 대화였음. 대화 도중에도 사실 왜곡, 서울상경집회 등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신뢰가 없는 대화는 무의미함
- ③ 구치소를 포함한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시작 당시 범군민적 합의와 동의하에 공개적으로 추진하였고,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이미 군민의 심판을 받은 사항임
- ④ 교정시설 설치로 교육도시 이미지가 훼손되지는 않음.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당초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고, 일련의 모든 절차가 4년전부터 진행되어 정당하고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 ⑤ 거창군 관내 132,000m<sup>2</sup> 이상 국유임야는 총 86필지로써, 대부분 깊은 산중에 위치하고, 진입도로가 없어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

# 군 정 질 문 답 변 내 용

【답변 : 창조산업과】

□ 창조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 평소 범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향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대체지와 관련하여 군민간의 갈등 사례와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거창범조타운 반대 단체측에서는 3번에 걸쳐 대체부지라며 제안을 하였고, 이에 법무부에서는 5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현장실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안지 모두 구치소 설치장소로 부적합 또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민 갈등의 원인은 반대 단체측에서 대체지라고 제안을 하면서 관련 지역 주민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구치소 부지로 제안을 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이 이를 알고 반발하여 현장실사 저지, 규탄 기자회견, 서영교 의원

및 법무부 항의방문 등으로 반대측 단체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갈등의 해결방안은 갈등상황을 촉발시키고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갈등해결에 나서는 것이 순리이고 도리 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음으로, 갈등해소위원회 재가동을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법조타운 반대 단체측에서 말하는 갈등해소위원회는 구성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갈등 해소와 관련하여 반대 단체측의 제안으로 지난 6. 18일, 6. 25일, 그리고 7. 2일 3차례에 걸쳐 갈등해소 방안 협의를 위한 우리군 실무자와의 대화를 진행한 것이 전부입니다.
- 이것을 반대 단체측에서는 일부 언론과 자신들의 카톡방 등을 통해 '갈등해소위원회 구성 합의'라는 제목으로 올려 마치 갈등해소위원회가 구성된 양 사실을 왜곡하여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요구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았고,
- 또한, 실무자간 대화에서 갈등해소를 하기 위해 시위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서울 상경집회,



피켓시위, 관련공무원 고발 운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 반대 단체측의 이러한 일련의 언행들은 갈등해소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전혀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것이 우리군의 입장입니다.

군민들의 의사에 따라 교도소 입지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수십년간 지속된 가축분뇨 악취 고통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발전, 지역거점화, 낙후지역 개발 등 다목적의 효과를 얻기 위해 국책사업인 교정시설 유치를 포함한 범조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 물론, 구치소는 국가계획에 의해 2015년 이후에 반드시 설치 되어야 하는 사업이었으며, 이 사업의 시작 당시 범군민적 합의와 동의하에 공개적으로 추진하였고 적법한 모든 절차를 거쳐 진행한 사업입니다.
- 또한, 이 사업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이미 군민의 심판을 받은 사항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생활환경이 열악한 성산마을 일대에 거창구치소를

건립하고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군민의 박수 속에 시작을 했고, 지난해 11월 26일 군수님 담화문에서 이 사업에 관한 한 모든 행정적,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고 분명히 밝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 교육도시 거창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군이 나서서 법무부에 대체지 마련 요구를 획기적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교정시설 설치로 인한 교육도시 이미지 훼손이란 관념은 그간 교정시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 막연한 심리적 불안 요인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 교정시설은 국가 기반시설이며, 사회 안전망이고, 그 어떤 공공시설에 못지 않는 안전한 국가기관입니다.
- 현재 전국의 주요 지역거점 도시에는 거의 교정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도시로 알려진 천안·청주·진주 등에도 교정시설이 있으나, 그로 인해 교육도시의 이미지가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 어떻게 보면, 교육도시라 자부하는 우리 거창에서 교정시설과 재소자·출소자에 대한 적대와 편견 의식을 갖는다는 것을 부끄러워 해야 할 것입니다.

- 주인의식을 가지고, 상대를 관용하고 포용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임을 알고 교육도시 거창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말없는 대다수 군민들은 최근의 법조타운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깊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현재 법조타운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군 관리계획이 결정되고,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금이 약 200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이미 법무부에서 구치소 시설 공사를 발주하여 조달청에서 기술검토를 끝내고 공사 입찰공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성산마을 집단이주단지 조성사업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도 완료되어 10월 준공을 목표로 기반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와 보셨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당초 법조타운 조성사업의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고, 일련의 모든 절차가 4년 전부터 진행되어 정당하고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이 사업 반대 단체의 집요한 활동이 있으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군이 질 것이며, 그 책임의 대담은 이 사업의 결과로서 말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끝으로, 거창지원과 지청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의 4만평이나 되는 국유지와 국유림이 86필지나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 관내 4만평 이상이 되는 국유임야 86필지 중 1필지를 제외한 85필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임야입니다.

○ 읍·면별 현황은

가북면이 21필지로 전체 필지의 24%를 차지하고, 고제면 11필지, 남상면과 웅양면이 각각 10필지, 남하면과 신원면이 각각 8필지, 그 외 거창읍을 포함한 7개 지역이 18필지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 이들 임야는 대부분 깊은 산중에 위치하고, 진입도로가 없어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군정질문답변서

- 질문일시 : 2015. 9. 1.(화) 10:00 ~
- 질문의원 : 김향란의원
- 질문내용
  1. 택시 감차에 대해 예산현황 및 택시감차에  
    막대한 예산투입보다 택시 이용을 실질적  
    으로 늘이는 정책에 대한 대책
  2. 100원 택시 예산투입현황 및 이용현황,  
    사업성과

답 변 자 : 안전총괄과장

# 군 정 질 문 답 변 요 지

## □ 질문요지

- ① 택시 감차에 대한 예산 현황은? 택시감차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택시 이용을 실질적으로 늘이는 정책에 대한 대책은?
- ② 100원 택시 예산 투입현황 및 이용현황과 사업성과는?

## □ 답변요지

- ① 택시 감차에 대해 예산현황 및 실질적 택시이용을 제고 정책?
  - 택시 감차 예산현황 : '14년 239백만원, '15년 278백만원
  - 호출료 폐지 : 차후 택시업계의 요금변경시 호출료 폐지 권고
  - 택시이용 상품권 활용 : 강원도 등 타지역의 이용사례를 참고하여 우리군 접목여부 검토

☞ 감차를 통한 차량 감축 후 호출료 폐지 및 서비스 개선
- ② 100원 택시 예산투입현황 및 이용현황, 사업성과?
  - 예산 투입현황 : 2,090천원(주민자부담:1,778천원)
  - 이용현황
    - 운행기간 : 2015. 2월 ~ 2015. 7월
    - 운행횟수 : 편도 411회 (8개마을)
    - 탑승인원 : 831명 (8개마을)
  - 사업성과
    -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체감지수 향상
    - 읍면에 볼 일 보러 가는 시간 단축
    - 교통비용 부담의 실질적 감소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외의 보통주민 등 다양한 계층 혜택확대

☞ 농어촌버스 포기지역 우선으로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 군 정 질 문 답 변 내 용

【답변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김정욱입니다.

김향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택시감차에 대한 예산 현황과 택시감차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 보다 택시 이용을 실질적으로 늘이는 정책에 대한 대책입니다.
- 현재, 거창군은 법인택시 108대 개인택시 78대 총 186대가 등록되어 있고 한 대의 휴지 차량도 없이 전체 차량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 택시감차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택시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군수 공약사업으로서 거창군은 택시감차 사업을 위해
  - 2014년도에 택시총량제 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2019년까지 5년간 총 98대를 감차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 2013년도 거창군 자체 ‘거창군 적정택시 공급량 수요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도출된 55대를 목표로 감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4년도에는 10대의 택시감차를 목표로 국비 3900만원 군비 2억원 총 2억3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2월에 거창군 택시감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택시에 대한 보상가격을 2500만원으로 결정(개인택시 보상가격 미확정)하고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택시업계의 가격 불만족으로 인해 감차보상협약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 2015년도에도 제3차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라 국비 7800만원 군비 2억원 총 2억7800만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감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택시 이용을 실질적으로 늘이는 정책입니다.

- 현재 거창군의 택시에 대한 지원정책으로는 택시는 “대중교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대중교통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 따라, 택시업계의 불황타격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원, 국민들의 이동편의 및



이용율 증가를 위해 택시 카드단말기 설치, 카드단말기 수수료,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자가용 보급율 증가로 상대적으로 택시 이용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따라서 택시업계는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 택시 이용율을 늘이기 위한 대안으로는

첫째, 호출료 폐지입니다.

최근 카카오택시 등의 출현 등으로 관내 모 법인택시에서는 9월1일부터 “호출료 1,000원”을 받지 않겠다는 자구책을 내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는 택시업계 스스로 호출료를 없앴으로 간접적으로 주민들로 하여금 택시 요금 부담감을 줄여 이용율을 높일 것이라는 현실적인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경남도내 호출료가 있는 지자체가 얼마되지 않으며 의령군의 경우 2014년도에 호출료 1,000원을 폐지하고 기본운임 1,000원을 인상(3,000원→4,000원)조정 한 바가 있고,

우리군의 기본운임이 3,500원으로 타지자체 기본운임

4,000원보다 낮으므로, 차후, 택시업계와 협의시 호출료를 폐지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특히, 승객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거창읍의 경우 택시를 호출하여 도착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목적지까지 도보로 갈 수 있는 좁은 지역으로서, 호출에 의한 탑승보다 거리에서 운행 중인 택시를 직접탑승하는 경우가 많아, 호출에 의한 수익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둘째, 택시이용 상품권 지급관련입니다

유사한 사례로 2014년도 강원도에서 ‘효도택시’란 명칭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돌봄서비스 중 기본서비스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1년에 분기별로 1인당 5,000원상당 택시이용권 4매씩을 배부하여 일시적으로 몇 개월 시행하였으나, 예산투자대비 효과가 미비하고, 국토교통부의 “수요응답형 택시” 시행에 따라 이중지원의 문제로 2015년부터 통합운영을 위해 예산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 그러나, 우리군은 부르미택시 미운행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택시이용 상품권” 지급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현재 거창군의 택시는 포화상태로서 『감차』를 통한 물리적인 차량대수 감축 후에, 택시업계 자율에 의한 『택시요금 조정 및 서비스 향상』을 통해 승객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만 택시업계의 적정한 수준의 수입이 유지되고,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택시감차사업은 전국 택시업계의 요구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비록 현재는 감차금액 불만족으로 감차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점차 택시업계 요구금액과의 절충을 통한 감차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100원 택시 예산투입현황 및 이용현황, 사업 성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거창군이 2015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요 응답형 택시의 명칭은 ‘부르미택시’라 명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군 시행 부르미택시는 2015. 2월 3개 시범마을(응양면 우랑, 신원면 상감악, 가북면 고비)을 시작으로 5월 중순부터 농어촌버스 최종승강장으로부터 1.4km이상 떨어진 5개 마을을 추가하여 전체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 중입니다.
  - 8개 마을은, 응양면 4개 마을(우랑마을, 개화마을, 진마루마을, 성북마을)과 신원면 2개 마을(상감악마을, 상대현마을), 가북면 2개 마을(고비마을, 상감월마을)로서 전체 수혜대상 주민은 106가구 310명 정도 입니다.
  - 2015. 2월부터 2015. 7월말까지 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르미택시는 주 2일(월 편도 16회) 주민들이 사전 제출한 시간표에 의해 운행되고 있으며,

마을~면소재지까지는 1대당 100원, 마을~거창상설 시장까지는 1명당 농어촌버스요금을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 2015. 2월 ~ 5월 중순까지는 3개 시범마을만 운영하였고, 6월부터 7월까지는 8개 마을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아직 운영기간이 짧아서 통계 및 운영성과 분석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현황은 총 운행횟수가 편도 411회, 탑승인원 831명, 주민부담액 1,778천원(1인당 2,140원), 군 지원금 7,384천원(1인당 8,880원)입니다

▶ 월별 보조금 지원 및 이용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운행횟수	411	32	33	48	68	113	117
탑승인원	831	60	69	86	134	220	262
주민부담	1,778	139	141	166	287	447	598
보조지원액	7,384	585	570	875	1,258	2,006	2,090

- 부르미택시에 대한 2015년도 예산확보액은 9600만원 (군비100%)으로서, 2015년 2월 ~ 2015년 7월말 현재 까지 보조금 지원액은 7,384천원입니다. 총 운행요금에 대하여 주민부담이 20%정도이고 군비지원이 80% 정도입니다.
- 사업성과로는 부르미택시를 운행한지 7개월 정도로서, 4개월의 시범기간(3개마을)과 2개월(8개마을) 정도 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본 사업의 당초 목표인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업계 경영개선” 이라는 목표 중 주민 교통편의는 달성하였고, 택시업계 경영개선은 9개 택시의 경영개선에 일부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성과분석에 대한 자료는 서면 설문조사를 통한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용주민과 택시기사들의 구두 의견을 통한 분석 자료이며, 2015.11월~12월에 운영성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 탑승객으로는 고령층 노인들과 자가용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주민들이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보통주민들에 대한 교통복지 체감지수가 높아졌으며,

- 탑승객의 이용목적은 50% 정도는 시장을 가기 위해, 40% 정도는 병원진료, 나머지 10% 정도는 목욕탕 및 타지역 출타를 위해 이용함으로, 평소 읍면방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단축되어 시간활용도가 높아지는 등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횡수 증가로 주민 만족도가 높습니다.

- 현재는 마을진입 최종승강장으로부터 1.4km 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부르미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나, 향후, 수익저조 및 운행여건 불편으로 인해 농어촌버스 운행 포기지역이 발생할 경우 우선대상 지역으로 부르미택시를 확대 운영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어촌버스와의 충돌지역은 제외).

무엇보다, 우리군이 시행하는 부르미택시는 단시간의 성과창출로 생색 내기식 선심성 행정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가려운 곳과 불편한 곳을 해소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군정질문답변서

● 질문일시 : 2015. 9.

● 질문의원 : 김향란의원

● 질문내용

6.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 청년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사업추진 현황
-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현황과 향후 방향

답변자 : 승강기경제과장



# 군 정 질 문 답 변 요 지

## □ 질문요지

-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추진 현황은?
-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현황과 향후 방향은?

## □ 답변요지

### ○ 청년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사업추진 현황

- ① 애향장려금 지원으로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1인당 50만원의 장려금을 추석명절 전에 30명에게 지급하고 있음.
- ② 청년 및 출향인 취업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인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교육훈련비(기술습득, 인문교양, 벤치마킹)를 지원하고 있음
- ③ 자체 일자리사업 중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매월 110만원의 인건비로 연간 40여명의 청년에게 일자리 제공
- ④ 취업알선 전담 상담사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워크넷, 거창군 홈페이지 취업·구인 사이트에 우리군 구인·구직자를 등록하여 적극적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있음

○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현황과 향후 방향은

- ① 거창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설현대화('03~'15년)사업비 131억원, 문화관광형시장('12~'14년) 사업비 21억원 등 총사업비 152억원 들여 거창전통시장 시설 확충
- ② 거창전통시장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2012 ~ 2014년까지 문화관광형 특성화 사업비 21억원 투입하여 거창시장 특성화와 상인 의식 개혁 추진
- ③ 거창전통시장 현대화시설 개선을 위해 2016년 사업비 2억원으로 거창시장 지붕 비가림시설 설치 및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지속적 추진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
- ④ 거창관광 인프라 구축과 거창미래 50년 전략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시장으로 변화 추진

# 군 정 질 문 답 변 내 용

【답변 : 승강기경제과】

□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입니다.

- 김향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추진 현황 및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청년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사업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가 전체적으로는 청년일자리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거창대학, 한국승강기대학, 거창공고는 대부분 기술, 기능분야로 취업이 대체로 양호한 실정입니다.
- 우리군은 현재 관내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 인력이 희망과 보람을 가지고 현 직장에 잘 적응하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먼저, 애향장려금 지원입니다.

- 2012년부터 거창군 내 제조업체 등의 취업을 장려하고, 고향 사랑을 고취하기 위하여 애향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애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내 출신이거나 군내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군내에 주소를 두고, 군내 제조업체 등에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29세 이하인 사람”에게 1회에 한해 지원하고 있으며,
- 지원액은 50만원으로 2012 ~ 2014년까지는 20명에게 2015년도에는 30명으로 증원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원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거나 주소를 타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7명(신청 141명) 지원하였습니다.

**□ 거창승강기밸리 입주기업 청년희망 인재육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거창군과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입주기업 간에 “청년희망 인재육성 지원사업 약정서” 체결하여 현재 3개 기업, 60여명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승강기밸리 입주기업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 공공일자리사업 중 청년일자리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사업은 재학생을 제외한 만18세 이상 29세 이하의 예비취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연간 40여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인건비는 매월 11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 □ 그 밖에

- 취업알선 전담 상담사를 채용하여 2015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인 403명, 구직 188명을 등록하였고, 231명을 취업하도록 알선하였습니다.
- 거창군 홈페이지 취업·구인 사이트에도 구인·구직 113건(취업하면 삭제됨)을 등록하여 적극적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 창출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군 승강기농공단지예 우수기업이 유치되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하겠습니다.

## □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현황과 향후방향

- 다음으로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그 동안 거창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03년부터 시장현대화사업(아케이드, 주차장확장, 소방설비, 보도정비, 전선지중화사업, 진입로 개설 등)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등 152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 거창전통시장의 기반시설확충과 상인의식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시장 활성화 부분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88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거창소비시장의 흐름에 많은 변화가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만의 힘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시장상인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앞으로 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른 트렌드를 분석해서 소상공인, 시장상인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맞춤형 컨설팅 실시하여 개별 경쟁력을 높혀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시장을 찾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토요일시장, 프리시장, 특화거리 조성 등 도입방안을 찾고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과 인근도시와 가격 비교제 공시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시장살리기는 지역경제활성화의 큰 줄기입니다. 시장상인, 소상공인이 적극 참여하고, 고민해야 하며 행정도 적극 참여하여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추진현황 및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현황과 향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군정질문답변서

● 질문일시 : 2015. 9. 1.(수) 10:00 ~

● 질문의원 : 김향란

● 질문내용

## 4. 체육정책과 관련

- ① 체육 예산중에서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에 지원하는 예산을 비교 한다면 ?
- ② 체육회를 통합한 이유와 문제점은 ?
- ③ 학교 체육지원 계획은 ?

답 변 자 : 체육청소년사업소장

# 군 정 질 문 답 변 요 지

## □ 질문요지

### 4. 체육정책과 관련

- ① 체육 예산중에서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에 지원하는 예산을 비교한다면 ?
- ② 체육회를 통합한 이유와 문제점은 ?
- ③ 학교 체육지원 계획은 ?

## □ 답변요지

- ① 학교체육이 포함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예산지원은 균형있게 지원하고 있음
- ② 이원화되어 있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비효율성과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하여 거창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통합체육회가 출범하였고, 통합 3년차인 2015년부터는 통합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음
- ③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규정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체육지원 보조사업 제한되고 있음



# 군 정 질 문 답 변 내 용

【답변 : 체육청소년사업소】

□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입니다.

○ 김향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예산중에서 학교 체육과 엘리트 체육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정책분야의 예산을 학교체육이 포함된 엘리트체육 예산과 생활체육 예산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엘리트체육 예산으로 배드민턴종목 엘리트운동부 육성지원 등 7개 분야에 308백만원이며 생활체육 예산으로 한마음종합체육대회, 제26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등 10개분야 1,146백만원입니다.

○ 2015년은 제26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예산 856백만원을 제외하면 295백만원으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예산지원에 큰 차이 없이 균형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체육회를 통합한 이유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로 이원화 되어 있는 체육단체 통합은 2011년 1월에 조직운영의 비효율성과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하여 거창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통합체육회가 출범하였습니다.

○ 양 단체의 대표와 행정과 의회가 포함된 체육단체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거창만의 특색있는 통합체육회 규약과 사무국 운영규정을 만들어 통합하였고, 3년차인 2015년 현재는 통합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또한 경남도내에는 거창군을 비롯해 진주,사천,함안,산청,합천 등 6곳의 체육회가 통합되었고,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난 3월에 개정되어 양 단체의 통합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 다음은 “학교 체육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는 1교 1기 등 학교체육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규정』 제3조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 체육강군의 초석을 놓는 학교체육 육성을 위하여 스포츠클럽을 통한 지원과 체육진흥기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